

전남 농림어업 취업자 2년 연속 증가

광주 4000명 줄고 전남 1만6000명 늘어...전국 취업자도 증가 전남 1월 최저·10월 최고...“고령화 대비 양질 노동력 확보 숙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전남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비농림어업 분야 취업이 활성화되면서 농림어업 분야 노동 공급이 경영주의 자가 노동이나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1 농림어업 고용동향과 시사점'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농림어업 취업자는 광주 1만2000명·전남 22만1000명 등 2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5.4%(1만2000명) 증가했다. 광주는 전년보다 25%(-4000명) 급감했지만, 전남은 7.8%(1만6000명) 늘었다.

전남은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2020년부터 2년 연속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 2019년 19만1000명 이후 2020년 20만5000명, 지난해 22만1000명으로 2년째 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지난 2015년(22만5000명) 이후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농림어업 분야 비중도 19.6%(2019년)→21.0%(2020년)→22.4%(지난해)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반면 광주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9년 1만3000명에서 이듬해 1만6000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전국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도시 취업자는 전년보다 2000명 감소한 반면 농어촌 취업자는 1만5000명 증가했다.

전국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7만3000명(2016년)→127만9000명(2017년)→134만명(2018년)→139만5000명(2019년)→144만5000명(2020년)→145만8000명(지난해) 등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전남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노동의 계절성을 반영해 전형적인 'M'자 곡선을 보였다.

전남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월이 20만2000명으로 가장 적었고, 10월과 11월이 각 23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월(-1만4200명)과 3월(-2만5700명), 4월(-3000명), 5월(-3100명) 감소한 반면 전남에서는 12개월 모두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특히 1월 취업자 증가 폭(2만8200명·16.2%)이 가장 컸다. 취업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달은 6월

(9300명·4.3%)이었다.

전국 농림어업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60대 이상 연령층 증가세와 30대 이하 및 40-50대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연령대별 취업자는 30대 이하 9만1000명(6.2%), 40-50대 36만2000명(24.8%), 60대 이상 100만5000명(68.9%)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30대 이하에서 6000명, 40-50대에서 3만4000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에서 5만4000명 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 연령대의 증가세는 2017년 이후 계속 이어졌지만, 30대 이하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했다. 40-50대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도 감소했다.

보고서를 펴낸 마상진 선임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는 농림어업 취업자 연령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30대 이하 및 40-50대 농림어업 취업자는 향후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향후 농림어업 노동의 질적 제고 및 농림어업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 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림어업 고용동향이 최근 5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령층과 비상용 근로자가 증가하고 청년 및 중년층과 상용 근로자는 감소하는 등 질적으로는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농림어업 분야 인력 부족과 비숙련 종사자 중심의 노동 공급 문제는 더욱 심화되기에 양질의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농철 사고 예방...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



박서홍(왼쪽 두 번째)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18일 무안 운남농협에서 펼쳐진 농기계 수리 봉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순회 활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8일 무안 운남농협에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봉사 활동’을 했다. 봉사에는 전남농협 농기계 기술자와 농기계 생산업체 전문기술자 30여 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참여했다.

트랙터·콤바인·경운기·예취기 등 영농현장에서 고장 빈도가 높은 농기계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했다.

농업인이 스스로 기본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안전관리요령도 교육했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와 더불어 최근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영농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서홍 본부장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어 애로가 많은 섬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다”며 “영농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삼도농협서 ‘영농폐기물’ 수거



광산구 도덕동 삼도농협 경제사업장 일대에서 열린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에서 고성신(오른쪽 2번째) 농협 광주본부장 등이 폐농약병을 분리수거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삼도농협, 농기주부모임은 최근 광산구 도덕동 삼도농협 경제사업장 일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봉사에는 고성신 농협 광주본부장과 오종선 삼도농협 조합장, 황금숙 농기주부모임 회장, 여용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등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29개 영농회를 찾아 7t 상당 폐농약병과 폐비닐을 수거·분류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올바른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농약병 분류작업에 동참했다.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는 깨끗한 농촌을 가꾸기 위해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사)도농상생운동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거한 폐농약병과 폐비닐을 활용해 마련된 수익금은 다음달 예정된 ‘열무김치 나누기 행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만들어진 김치는 홀몸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특산품 변신은 무죄...화장품·입욕제 등 뷰티 상품 인기

수분크림·클렌징폼 등 39종 경제 활성화·생산농가 소득 증대



전남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원료로 만든 뷰티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의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등 9개 시·군의 17개 업체가 개발한 아이디어로 우수한 농특산물에서 원료를 추출해 만든 화장품, 입욕제 등 39종의 뷰티상품(사진)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추출물의 원료는 독특하고 천차만별이다.

시·군별로 여수 동백나무·불수감, 순천 고들빼기, 광양 매화꽃, 담양 대나무·죽순·청태전·흙미강, 고흥 유자씨·유자껍질, 보성 녹차·백수오·금화규, 장흥 어성초·자소엽·산돌배일, 완도 황칠, 진도 울금 등이다.

상품은 천연오일부터 에센스, 수분크림, 입욕제, 클렌징폼, 마스크팩, 비누, 샴푸까지 다양하다.

2011년 여수에서 창업한 김광진 ㈜엘엔케이네이처 대표는 여수시와 공동으로 천연동백오일과 동백에센스오일, 동백수분크림 등을 개발했다. 제품을 11번가, 네이비스토어 등 온라인과 오프마켓에서 관광 선물용 등으로 판매해 연간 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동백오일은 피부 친화력과 보습, 건강한 모발 관리 등에 매우 좋고, 천식과 피부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뷰티상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피부병 예방용 샴푸와 식품도 개발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

을 운영하는 박영수 대표는 두피건강과 탈모 완화에 효과가 있는 ‘아이밤부 아티 헤어로스 샴푸’를 비롯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아이밤부 오리진세라미드크림’ 등 5종의 상품을 내놔 연간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녹차의 고장 보성의 이성우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성우 대표와 한영섭 보성 윤림녹차 대표는 백수오와 녹차를 이용해 미백과 주름 개선, 피부 문제점이 없는 화장품, 비누, 샴푸, 마스크팩 등을 생산하고 있다.

두 업체는 각각 연간 8억원과 3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매화의 고장 광양의 복영옥 ㈜메시코사 대표는 매화수를 첨가해 만든 천연 화장품으로 지난해 11월 ‘유럽유기농 화장품 인증(COSMOS)’을 얻어 수출시장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어 케이뷰티(K-beauty)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내 뷰티산업 시장규모가 16조2633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4.9%씩 성장하고 있다”며 “전남의 풍부한 천연소재를 이용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뷰티상품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